

“4차전서 끝, 한국시리즈는 우리가”...키움-SK 출사표

오늘 1차전...김광현 vs 브리검 선발 예고

장정석 vs 엄경엽, 선후배 지략대결도 관심

한국시리즈를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한 키움 히어로즈와 SK 와이번스가 경기장 밖에서 전초전을 벌였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가 13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렸다. 양 팀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참석해 플레이오프를 앞둔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

준플레이오프를 통과한 키움에서는 장정석 감독을 비롯해 4번타자 박병호, 불펜의 핵 조상우가 자리를 찾았다. 정규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SK는 엄경엽 감독과 중심타자 최정, 마무리 하재훈을 행사에 내보냈다.

먼저 엄경엽 감독은 “정규시즌이 끝나고 2주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며 “우리 선수들은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 나은 경기력,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필

승을 다짐했다.

장정석 감독도 “지난해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팀과 플레이오프를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계약을 앞둔 출정식에서 팬들에게 ‘지난해 아쉬움의 눈물을 올해 기쁨의 눈물로 바꿔드리겠다’고 말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정규시즌 막판 믿기지 않는 부진으로 다잡은 1위 자리를 놓친 SK 선수들은 ‘분위기’를 강조했다. 충격을 훌훌 털어버리고 플레이오프를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정은 “준비 기간 동안 좋은 분위기 속에 연습을 해왔는데, 그 분위기를 이어 플레이오프에서도 꼭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재훈 역시 “플레이오프에서도 정규시즌 때처럼 선후배들과 웃으며 즐겁게 야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움 박병호는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5차전 끝에 2승3패로 패배, SK에게 한국시리즈 진출권을 넘겨준 것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준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히어로즈의 모습으로 플레이오프에서도 승리해 지난해 아쉬움을 설욕하고 싶다”고 필승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열리는 1차전 선발투수로는 SK 김광현, 키움 제이크 브리검이 예고됐다.

엄경엽 감독은 “아시다시피 김광현”이라며 더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다”고 팀의 절대 에이스를 향한 굳은 신뢰를 표했다.

이에 맞서 장정석 감독은 “브리검이 준플레이오프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문학구장(행복드림구장)에서도 잘 던졌다”며 “지난해 여기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각별한 선후배 사이인 두 사령탑이 감독으로 처음 포스트시즌에서 맞붙는 것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해 키움과 SK의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장정석 키움 감독은 그



엄경엽 SK 와이번스 감독과 장정석 키움 히어로즈 감독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선수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5전 3선승제로 진행되는 SK 와이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플레이오프 1차전은 오는 14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다.

대로였지만 SK의 감독은 트레이 힐만이었고, 엄경엽 감독은 SK의 단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

양 팀 홈런타자들이 동석한 상대 마무리 투수를 평가하는 순서도 있었다.

최정은 “조상우 선수는 타자들이 압도할 수 있는 품을 갖췄고 구속도 빠르다”며 “거짓말을 좀 보태

면 공이 날아오는 게 안 보일 정도라 운에 맡기는 스윙을 하는데, 이번에는 운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고 호탕한 웃음을 보였다.

박병호는 “하재훈 선수가 올 시즌 처음 KBO리그에서 뛰는데, 굉장히 좋은 구질을 보여줬다”며 “단기전이기에 때문에 더 까다롭게 승부가 들어올 것 같다. 실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나의 싸움”이라고 평기했다.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함께하며 6명이 이번 플레이오프 경기 수를 예상했다. 6명 모두 손가락 4개를 폈다. 4차전에서 플레이오프를 끝내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겠다는 뜻이었다.

뉴스1

정정용 감독의 U-18 남자대표팀, 베트남 꺾고 방콕컵 우승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18 남자대표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베트남 U-19 대표팀을 꺾고 우승했다. U-18 대표팀은 12일(한국시

간) 방콕 분야친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GSB 방콕컵 결승전에서 베트남을 2-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전반 31분 최세윤(대전고)의

선제골, 전반 42분 권민재(개성고)의 추가골로 앞선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베트남에게 만회골을 내줬으나 더 이상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우즈베키스탄을 5-1로 대파한 대표팀은 이날 베트남까지 물리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태국축구협회 주최로 2000년 이후 출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대회에는 대한민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이 참가한다. 한국은 2001년생 선수들로 구성된 U-18 대표팀이 참가했다.

대표팀은 대회 종료 후 14일 귀국해 해산한다. 이후 10월 말 다시 소집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리는 AFC U-19 챔피언십 예선을 준비한다. 대한민국은 중국, 미얀마, 싱가포르와 함께 I조에 속해있다.

평양원정 앞둔 벤투호, 한국서 막바지 구슬땀

내일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H조 3차전



오는 15일 평양 원정을 치르는 벤투호가 12일 국내에서 막바지 구슬땀을 흘렸다. 컨디션을 점검하고 공격과 수비 전개에 대한 전술훈련에 집중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는 15일 오후 5시30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북한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H조 3차전을 치른다. 현재 두 팀은 각각 2승으로 승점

6점을 기록 H조 1, 2위에 올라있다. 한국이 지난 스리랑카전 8-0 대승을 거둬 골득실에 앞서 1위를 기록 중이다.

벤투호는 12일 오후 4시부터 파주 축구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국내 훈련을 진행했다.

벤투호는 오는 13일 오전 최종 훈련을 하고 오후 4시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한다. 이후 14일 평양으로 이동하고, 15일 경기를 치른다.

벤투 감독과 코치진은 이날 본격적인 몸풀기에 앞서 전술 지시를 약 10분간 내렸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개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공격의 방향 전환, 공을 받는 움직임, 3차 패스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역습에 대비해 수비 상황에서의 라인 위치 등을 짚었다.

이후 진행된 훈련은 가벼운 러닝을 시작으로, 장애물 훈련, 짧은 공돌리기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훈련은 20분간만 공개됐다. 분위기는 내뽐지 않았다. 대표팀 막내 이강인(18·발렌시아)은 형들과 웃으며 훈련에 임했고 김민재(23·베이징 궈안)는 러닝 중 기합을 넣으며 사기를 북돋웠다.

앞서 대표팀의 미드필더 이재성(27·울슈타인 킬)은 “오늘부터 북한에 대한 비디오분석과 전술훈련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정우영(30·알 사드)은 “분석 결과로는 북한이 수비가 탄탄하고 역습이 빠르다. 두 명의 스트라이커도 위협적이다. 역습을 차단하고 경기 균형을 잡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